

수용자의 기대지평에 따른 번역텍스트 변용 연구

— 중국과 대만 번역본 간 비교를 중심으로*

최지영**

목 차

1. 들어가며
2. 번역연구에 대한 수용이론의 적용
 - 1) 기대지평과 불확정성
 - 2) 수용환경 기반 기대지평의 조정
3. 기대지평에 따른 번역텍스트의 변용 사례분석
 - 1) 무엇이 조정되는가?
 - 2) 어떻게 조정되는가?
4. 글을 맺으며

국문초록

이 글은 수용환경에 기반한 수용자의 기대지평에 대한 조정이 번역텍스트의 변용을 야기한다는 전제하에 동일 원저에 대한 중국과 대만의 번역본을 대상으로 그 양상을 비교함으로써 번역텍스트에 대한 수용환경의 영향을 고찰하였다. 특정 수용환경에서 선지식들에 의해 구성되는 수용자의 기대지평은 타국의 작품을 접할 때에도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인식의 프레임으로 작용한다. 다만 언어·문화적 수용환경 차이로 인해 TL수용자는 SL수용자와 달리 원저에 대해 일정한 인식의 간극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작품의 수용을 위해 번역과정에서 반드시 조정되어야 하는 수용자의 기대지평이다. 1949년 이래 중국과 대만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각기 다른 정치적

* 단국대학교 대학원 중국어통번역학과 교수

** 세 분 심사위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위원의 건의에 따라 중국과 대만 번역본 간 비교라는 본고의 취지에 맞게 사례 인용에 한해서는 간체자와 번체자를 구분하여 표기하였음을 밝힙니다.

노선을 걸어왔고 이는 동일한 언어와 문화를 공유함에도 수용환경의 차이를 야기해 왔다. 본고는 번역연구에서 기대지평의 조정을 ‘무엇이 조정되는가’와 ‘어떻게 조정되는가’로 구분하여 중국과 대만의 번역본 간 변용 양상을 비교하였다. 조정이 되는 것은 ST 고유의 문화소,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 인식 차이에 따른 어휘이며, 조정의 방식은 생략과 축소, 대안어휘, 설명을 포함한 추가이다. 무엇보다 국가와 민족, 영토, 정치 지도자와 관련해서 중국은 대만 번역본에 비해 수용환경의 영향이 두드러졌으나, 동성애나 혼숙 등 성적으로 예민한 내용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키워드: 수용이론, 기대지평, 텍스트 변용, 대체 어휘, 중국과 대만

1. 들어가며

90년대 번역연구의 문화적 패러다임 전환(cultural turn)은 번역텍스트를 소비하는 주체로서 수용자에 관심을 전이시키면서, 작품이 수용되는 환경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촉발해왔다. 번역텍스트를 하나의 번역문학(translated literature)으로 간주하고 이를 수용지역 언어·문화권의 시스템적 상호작용에서 논하는 폴리시스템 이론이나,¹⁾ 번역의 목적과 전략이 수용하는 독자를 전제해야 한다는 스코포스 이론,²⁾ 시대에 따라 다양한 번역텍스트를 인정하는 조작학과³⁾와 번역텍스트의 변용을 굴절과 다시쓰기로 체계화한 르페브르⁴⁾

1) 제레미 먼데이, 사라 라모스 핀토, 남원준·이향진 옮김, 『번역학 입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23, 266-270쪽.

2) Katharina Reiß & Hans J. Vermeer, Translated from the German by Christiane Nord, *Towards a General Theory of Translational Action: Skopos Theory Explained*, London: Routledge, 1984, pp. 85-93.

3) Hermans, T. (ed.), *The Manipulation of Literature*, Beckenham: Croom Helm, 1985, pp. 10-11.

4) Andre Lefevere, *Translation, Rewriting and the Manipulation of Literary Fame*, London: Routledge, 1992.

등은 모두 결과물로서의 번역이 수용자가 속한 공동체의 문화와 가치관, 이데올로기와 심미관 등 사회·문화적 환경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수용자 중심의 시각을 공유한다. 이에 따라 번역연구는 그 범주를 번역텍스트에 대한 평가보다는 기술적(descriptive) 연구, 번역전략과 번역자의 역할, 동일한 원저에 대한 번역본 간 비교, 번역과정에 영향을 주는 수용환경과 그 요인에 대한 분석 등으로 확장해왔다.

이저(Wolfgang Iser), 야우스(Hans Robert Jauss) 등으로 대변되는 독일의 수용이론 또한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번역연구에 도입되고 있다.⁵⁾ 문학작품의 수용과정에 주목하는 수용이론은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수용자인 독자의 역할에 주목한다. 야우스는 철학자 가다머(Hans-Georg Gadamer)의 선이해와 지평의 융합에 기반하여 ‘기대지평’을, 이저는 잉가르텐(Roman Ingarden)의 현상학을 이론적 기초로 하여 작품이 가지는 ‘불확정성’을 자신의 수용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주요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기대지평이 작품을 접하기 이전 독자가 가진 의식이나 습관, 취향, 심미관과 가치관, 규범 등을 총망라한 것으로 독자가 작품을 이해하고 해석·평가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면, 불확정성은 독자의 상상력과 독서행위를 자극하는, 문학작품이 가지는 무수히 많은 불명확한 비어있는 공간이다. 야우스는 작품과 독자 간 기대지평의 융합을 통해, 이저는 독자들의 적극적인 독서행위를 통해 불확정성의 공간을 메움으로써 수용이 일어난다고 보았다.⁶⁾

한편 보다 근원적으로 볼 때 번역을 수용의 결과물로 보는 시각은 번역이 단순히 ‘출발어(Source Language, SL)’와 ‘도착어(Target Language, TL)’라

5) 김가희·박윤희, 「『위대한 개츠비(The Great Gatsby)』 번역평가와 수용이론」, 『통역과 번역』 제16권 2호, 2014; 최지영·주몽아, 「자막번역의 수용자 영향 분석을 위한 시론: 기대지평의 융합을 위한 번역방식 비교를 중심으로」, 『한중언어문화연구』 52집, 2021; Yang Shizhuo, “Gone with the Wind, Gone with the translator Influences of Reception Theory on the Formation of a Translation”,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Vol. 11 no.2, 2009.

6) 야우스 H.R, 장영태 역, 『도전으로서의 문학사』,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3; 볼프강 이저, 차봉희 편저, 『독자반응비평』, 서울:고려원, 1993.

는 두 언어 간 전이가 아닌, 수용과정에서 ‘문화적으로 변용(acculturation)’되는 것임을 보여준다. 르페브르의 표현을 빌자면, 특정 시기, 특정 문화의 영향 하에서 ‘굴절(refraction)’된 것이 번역텍스트인 것이다.⁷⁾ 그리고 이는 그것을 생산하는 번역자가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으로) 추가하거나 생략 혹은 선택한 단어들과 이를 드러내고 배치하는 방식 뒤에 번역자가 속한 수용환경의 영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번역자가 사회문화적으로 용인되는 규범을 지향하거나,⁸⁾ 독자나 후원자의 기대에 따라 특정 담론을 은폐하거나 타자화하며,⁹⁾ ‘출발어텍스트(Source Text, ST)’와 ‘도착어텍스트(Target Text, TT)’ 간 잠재적 의미를 명시화(explicitation)하거나 정전화(canonized)하는 것 등이다.¹⁰⁾

그렇다면 수용환경은 번역텍스트의 변용에 어떠한 영향을, 또 어떤 방식으로 끼치는가? 이 글은 독일 수용이론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수용환경에 기반한 수용자의 기대지평에 대한 조정이 번역텍스트의 변용을 야기한다고 전제하고, 동일 원저에 대한 중국과 대만의 증역본¹¹⁾을 대상으로 그 양상을 비

7) Andre Lefevere, *Translation, History, Culture: A Sourcebook*, London: Routledge, 1992, p.14.

8) 테오 허만스, 「규범 그리고 번역의 결정: 이론적인 틀」, Roman Alvarez & M.Carmen (ed.), 『번역, 권력, 전복』, 동인, 2007, 45-52쪽.

9) 장재일·박윤희, 「르페브르의 다시쓰기와 번역가의 과제-충실성(Fidelity)과 충실성(Loyalty)의 딜레마」, 『철학·사상·문화』 제25호, 2017; 김소정, 「번역과 굴절: 『앵클 톱즈캐빈』의 중국적 재구성」, 『중어중문학』 제46집, 2010; 도희진, 「중한번역의 이데올로기 조정에 대한 소고」, 『번역학연구』 제9권 3호 2008; 조윤정, 「1950년대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본 『올리버트위스트』의 번역 양상」, 『구보학회』 35집, 2023.

10) 이 점에서 번역의 수용은 매우 문화적이면서도 정치적이라고 하겠다. 앙드레 르페브르, 「번역과 정전 만들기: 미국 드라마의 90년사」, Roman Alvarez & M.Carmen (ed.), 『번역, 권력, 전복』, 동인, 2007, 225-253쪽; 이봉범, 「냉전텍스트 실패한 신의 한국 번역과 수용의 냉전 정치성」, 『대동문화연구』 제117집, 2022.; 안미영, 「조지 오웰 『1984』의 번역과 수용과정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67집, 2019; 강지혜, 「출판 번역과 텍스트의 ‘재맥락화’: 『셀프헬프』의 번역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제8권 1호, 2007.

11) 본 고의 분석대상은 김영하의 <빛의 제국>과 <검은 꽃>, 한강의 <작별하지 않는다>, 그리고 김애란의 <바깥은 여름>에 대한 중국과 대만의 번역본이다(<표1> 참조). 각각 TT1과 TT2로 표기한다.

교한다. 1949년 이래 중국과 대만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각기 다른 정치적 노선을 걸어왔고 이에 오랜 세월 공유했던 언어와 문화에도 불구하고 수용환경의 차이를 야기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¹²⁾ 수용환경의 차이는 동일 원전에 대해서도 수용 독자 간 기대지평의 차이가 불가피함을 시사하는데, 이는 번역텍스트에서 생략이나 삭제, 혹은 추가나 특정 어휘의 선호 혹은 회피 등 다양한 양상으로 드러남을 확인할 수 있다.¹³⁾ 이에 본고는 그 양상을 ‘무엇이 조정되는가’와 ‘어떻게 조정되는가’의 두 부분으로 구분하여 비교함으로써 수용환경 기반 기대지평의 조정이 번역텍스트에 미치는 영향을 메커니즘적 측면에서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2. 번역연구에 대한 수용이론의 적용

독일에서 수용이론(Reception Theory)은 1960년대 말 미·소 간 냉전의 갈등하에서 인간과 철학에 관한 고민이 문학과 예술적 가치에 반영되면서 문학 연구의 새로운 방법론으로 등장하였다. 문학작품에 대한 이해와 평가를 기존의 작가와 작품 중심에서 벗어나 역사와 정치·사회적 맥락에서 수용자와의 관계에서 연구해야 함을 주장하면서 야우스, 이저 등을 중심으로 하나의 학파를 이루었다.¹⁴⁾ 2장에서는 독일 수용이론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와 더불어 번역

12) 이현주, 「웹툰번역의 현지화에 관한 연구-중국 대륙과 대만의 중국어 번역을 중심으로」, 통번역연구 제24권 3호, 2020.

13) 물론 이는 동일한 수용환경 내에서도 번역자에 따라 다르게 드러날 수 있다. 다만 이 글에서는 번역자가 아닌 수용환경 기반이라는 점에서 중국과 대만의 번역본을 대상으로 삼는다.

14) 독일의 수용이론은 수용자의 심미적 측면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수용미학(Reception Aesthetic)’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본고는 ‘수용자를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이론들’이라는 수용이론에 대한 로버트 홀럽의 정의를 참고하여 수용미학을 수용이론에 포함하여 논하겠다. 로버트 C. 홀럽, 최상규 옮김, 『수용미학의 이론』 서울: 예림기획, 1999, 3-5쪽.

연구에의 적용을 기대지평의 조정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한다.

1) 기대지평과 불확정성

독일 수용미학의 창시자로 알려진 야우스는 문학사를 작가와 작품, 그리고 수용자라는 3자 간 관계에서 파악하면서 작품에 대한 수용자의 능동적인 이해와 참여를 주장하였다. 야우스에 따르면 수용자는 특정 시대와 문화적 배경에서 작품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이 수용자의 ‘기대지평(horizon of expectation)’이다.¹⁵⁾ 이는 작품을 접하기 이전 수용자가 가지는 주관적인 참조체계로 작품에 대한 이해를 결정짓는 인식의 틀로 작용한다.¹⁶⁾ 야우스는 수용자들 간의 공유 혹은 차별되는 기대지평들이 융합됨으로써 작품이 수용된다고 보았다.

작품의 수용이란 작품의 기대지평과 독자의 기대지평 간 변증법적 융합이자 양자 간 소통이다. 문학사는 연대별로 작가와 작품을 나열하는 것이 아닌, 이와 같은 관계가 세대를 넘어 새롭게 바뀌면서 이어질 때 만들어진다.¹⁷⁾

야우스가 문학사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수용을 바라보았다면, 이저는 작품이 수용되는 미시적 과정에 주목하였다. 이저에 따르면 문학텍스트는 독자가 메워가야 하는 수많은 공간들로 구조화된 패턴이다.¹⁸⁾ 이저는 문학을 텍스트(text)와 작품(art)으로 구분하였는데, 전자(前者)가 작가만의 생각과 감성을

15) 김천혜, 「수용미학의 흥성과 쇠퇴에 대한 고찰」, 『독일어문학』 제8집, 1998, 234쪽.

16) 로버트 C. 홀립, 최상규 옮김, 『수용미학의 이론』 서울: 예림기획, 1999, 84-85쪽

17) 야우스 H.R, 장영태 역, 『挑戰으로서의 文學史』, 서울: 文學과 知性社, 1983, 23쪽

18) 이는 문학작품이 그 속에 아직 확실히 표현되지 않은 ‘불확정적인 부분들’을 내포한 다의적 구성체라는 잉가르덴의 시각에 기반한 것이다. 최현주, 「이저의 수용미학에 관하여」, 『호남문화연구』 제37집, 2005, 214-215쪽.

글로 표현한 것이라면, 후자(後者)는 독서라는 수용행위를 통해 작가와 함께 재창조한 산물이 된다.¹⁹⁾ 이때 수용자의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적극적인 독서행위를 끌어내는 것이 문학텍스트 내의 불확정성의 공간들이다. 수용자에 의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확정적’이며, 독서를 통해 그 의미를 채워간다는 점에서 ‘비어있는 공간’이 된다. 다시 말해, 작가만의 문학텍스트는 독자들의 이해와 해석에 기반하여 불확정성의 공간이 메워질 때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되는데, 그 과정에서 수용이 이뤄지는 것이다.²⁰⁾ 따라서 수용이란 거시적으로 작품과 독자들 간 기대지평의 융합이며, 미시적으로는 문학 내의 무수한 불확정성의 공간이 수용자의 독서를 유도하는 장치로 작용하게 된다.

야우스와 이저의 수용이론이 번역연구에 시사하는 바는 작품의 완성에서 독자의 수용을 중요하게 보았다는 점이다. 이는 서로 다른 두 언어문화권 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데, 하나의 원저가 타국에 수용된다는 것은 또 다른 언어·문화권을 배경으로 하는 독자들과의 기대지평과의 융합이며, 이를 통해 탄생하는 번역텍스트는 원저에서 독립된 작품이다. 다만 원저를 접할 때 TL권 독자가 가지는 기대지평은 SL권 독자들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는 수용환경 차이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번역과정에서 일정하게 조정(mediate)될 필요가 있다.

2) 수용환경 기반 기대지평의 조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자가 작품을 수용하는 데 하나의 인식틀로 작용하는 기대지평은 그 작품을 접하기 이전의 경험과 문화, 다양한 이데올로기 등의 ‘선지식’에 의해 구성된다. 선지식은 주체가 현상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19) 최현주, 「이저의 수용미학에 관하여」, 『호남문화연구』 제37집, 2005, 220-221쪽.

20) 한채화, 「수용미학적 인식론에 대한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제4호, 1999, 445쪽.

범주로서 작품을 접하는 독자는 각자의 경험과 인식에서 비롯된 선지식을 가지고 있기에 동일한 작품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반응이 야기될 수 있다.²¹⁾ 기대지평은 이와 같은 선지식들의 체계로, 특정 언어·문화권의 수용환경은 구성원들의 선지식 형성에 일정하게 공유되는 기반을 제공한다.

이와 같이 특정 수용환경 하 선지식들에 의해 구성되는 수용자의 기대지평은 타국의 작품을 접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인식 프레임으로 작용한다. 다만 TL권 독자들이 작품에 대해 가지는 기대지평은 SL권 독자들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는 서로 다른 언어·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불가피한 면이 있다. 다시 말해, 번역연구에서 주목하는 기대지평의 차이는 ‘TL 수용자가 원저에 대해 SL 독자와 달리 가지는 인식의 간극’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우선, 번역에서는 ST에 대한 TL 독자의 기대지평의 조정이 불가피하다. 기대지평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TL 독자의 수용이 원저 독자와는 달리 직접적으로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인데, 보다 근원적으로는 수용환경의 차이에 기인한다. 다음 사례를 보자.

(1)

ST: 경북 지역 보도연맹원 1만여 명, 대구형무소 1천 5백 명 재소자, 경산 코발프 광산 및 인근 가창골, 학살지 유해 수습 발굴

<작별하지 않는다> 12쪽

TT: 庆北地区保导联盟员一万余人, 大邱刑务所一千五百名囚犯, 庆山、钻矿山及附近假仓谷, 挖掘、处理被屠杀者的遗骸。

역자주: 国民保导联盟成立于一九四九年, 是南韩政府为了彻底管束左翼分子而成立的全国性官方机构。以粮食为诱因鼓励民众登记自己为共产党员, 好对其实施再教育, 大约有三十万人登记为成员。韩战爆发后, 这些人被关在集中营, 成为军队逃跑时的累赘, 后来南韩总统李承晚下令处决保导联盟成员, 在未经审判的情况下, 估计有十万到二十万, 甚至更多人

21) 고위공, 「현대문예학의 인식방법론 문제-해석학, 현상학, 수용미학을 중심으로」, 『獨逸文學』 제27권 1호, 1982; 김천혜, 「수용미학의 흥성과 쇠퇴에 대한 고찰」, 『독일어문학』 제8권, 1998.

遭到屠杀。

(2)

ST: “소나타야 원래 흔하잖아” 현미는 목덜미를 긁었다. 현미의 희고 보드라운 목덜미에 붉은 흔적이 남았다. <빛의 제국> 427쪽

TT1: 索纳塔本来就 very 常见嘛。贤美挠了挠脖子，白皙而柔软的后颈上留下了红色的痕迹。

TT2: 索娜塔车子原来就 very 常见嘛! 贤美搔著脖子，白嫩的脖子上留下红色的痕迹。

(1)은 한강의 <작별하지 않는다>, (2)는 김영하의 <빛의 제국>에서 발췌하였다. 제주 4.3을 배경으로 하는 <작별하지 않는다>에는 대한민국 초기 근현대사의 역사적 사건들이 많이 언급된다. 예를 들어, (1)의 보도연맹의 경우 중국이나 대만 독자들은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한 선지식이 없기에 SL 독자와는 다르게 수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1)의 TT는 역자주를 통해 국민보도연맹의 설립 시기, 목적과 성격 등을 설명함으로써 ST에 대한 TL 독자의 기대지평을 조정하고 있다. (2)의 ST ‘소나타’ 역시 TL 독자들은 차량임을 즉시 유추하기 어렵다. 이는 그 이름만으로 차량임을 아는 SL 독자와는 다른 기대지평의 차이로 번역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하다. TT1은 기대지평의 조정 없이 ST 그대로 ‘索娜塔’, TT2는 ‘索娜塔車子’와 같이 뒤에 차량이라는 해석을 추가하였는데, 실제 TL 독자의 입장에서는 TT2가 TT1보다 이해가 용이하다. 이와 같이 번역에서 기대지평의 조정은 TL 독자가 ST를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한, 다시 말해 작품이 TL권 독자의 기대지평과 융합되기 위한 수용의 전제조건이 된다. 따라서 TL 독자의 기대지평을 예측하고 그 간극을 조정하는 것은 번역에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작업이라고 하겠다.²²⁾

두 번째로 번역에서 기대지평의 조정은 ST 작가에 의해 의도된 불확정성의 공간을 메우는 작업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이저에 따르면 문학텍스트가 가진 불확정성의 공간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문자의 한계로 인한

22) 이 점에서 번역자는 원저에 대한 첫 번째 독자이자 수용자라고 하겠다.

흐름의 단절로 전후 맥락에 따라 채울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작가에 의해 의도된 것으로 수용자의 다양한 해석과 이해를 촉발하여 양자 간 소통을 완성하는 장치이다. 그리고 타 언어·문화권으로 전환되는 번역에서는 이에 더하여 또 다른 불확정성의 공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ST와 TT 간 언어·문화적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인식의 간극, 즉 기대지평의 차이이다. 문체는 번역에서 기대지평의 조정이 작가에 의해 의도된 불확정성과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 예문을 보자.

그날은 또한 정희와 처음 말을 섞은 날이기도 했다. ... 볼이 붉고 작은 코가 오뚝한 아이였다. 아침 7시 20분. 각 학급 별로 집결지에 모여 발을 맞춰 등교할 때마다 둘의 눈길이 간혹 험겁게 엇섰다. 스케이트장에서도 그랬다. 털실로 짠 붉은 목도리를 목에 두른 정희가 기영을 향해 생긋 웃었고, 기영은 답례할 기회를 놓친 채 그녀를 지나갔다. 열 여섯 살의 기영에게는 다시 돌아가 말을 걸 용기가 없었다. ... 생각해 보면 낮이 뜨거울 정도로 촘촘한 대화였지만 그곳은 칠십년대 중반의 평양이었다. 기영뿐 아니라 그 누구도 스케이트장에서 만난 또래의 여자아이와 무슨 대화를 나누고 뭘 어찌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 <빛의 제국> 129-130쪽

김영하의 <빛의 제국>은 남한에 파견된 지 20년이 지난 후 어느 날 복귀 명령을 받은 북과공작원 김기영의 24시를 추적한 소설이다. 위 인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정희는 주인공 김기영이 북한에서의 청소년 시절을 회상하는 기억의 매개체이다. 마치 풋풋한 첫사랑을 그리는 듯한 작가의 이야기 방식은 친모의 죽음에 대한 회상에 이르러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독자들의 궁금증을 크게 증폭시킨다. (3)의 ST를 보면 친모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김기영과 정희 사이에 무슨 일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해 ‘그녀의 몸에 뜨거운 것을 쏟고’, ‘이십 년이 지나 예기치 않은 곳에서 다시 조우하게 될 것을’과 같이 모호하게 처리함으로써 독자들의 호기심을 유발한다. 그리고 독자는 (4)의 지점까지 독서를 진행하고서야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궁금증을 풀 수 있다. 작가에 의해 의도된 독자의 독서를 이어가기 위한 불확정성의 공간인 것이다.

(3)

ST: 그것은 명백히 금지된 것이었다. 얼마지 않아 그녀의 몸에 뜨거운 것을 쏟고, 그리고 그로부터 이십 년이 지나 예기치 않은 곳에서 다시 조우하게 될 것을 그때 미리 알았다더라면 그날의 만남이 그렇게 서먹하지 않았을지도 몰랐다. <빛의 제국>, 131쪽

TT1: 这是明确禁止的行为。不久他就把热乎乎的东西倾泻进了她的身体。二十年后，他们又不期而遇了。如果事先料到这些，那天的见面也许就不会这么尴尬了。

TT2: 因为那是被明确禁止的行为。不久之后，他将热乎乎的东西吐在她的身上，而且过了二十年后，他们又在想象不到的地方不期而遇。如果他能事先料到这些，那天的见面或许就不会那么生疏了。

(4)

ST: 정희가 대담하게 그를 끌어안고 복도 끝에 웅색하게 매달린, 복도로 몰려나온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베란다로 나갔다. 황해를 건너온 서풍이 거세게 그들을 때렸다. 그는 정희의 품에 안겨 숨을 몰아쉬다가 뜨끈하고 시큼한 체액을 그녀의 배에 울컥 토했다. <빛의 제국>, 134쪽

TT1: 贞姬大胆地抱着他，来到走廊尽头狭窄的阳台—过道里的人们看不到这个地方。从黄海吹来的西风肆意地抽打着他们。他扑在贞姬怀里，气喘吁吁，将热乎乎又酸臭的体液吐到她的腹部上面。

TT2: 贞姬大胆地搂著他，走到聚集在走道的人看不到的狭窄阳台。从黄海上刮来的西风猛烈地抽打著他们。他被贞姬抱在怀里，气喘吁吁，将一股酸热的胃液吐在她的腹部。

그러나 (3)의 TT2는 ‘他將熱乎乎的東西吐在她的身上’와 같이 그녀의 몸에 쏟아 내는 것이 토한 것임을 (4)의 ST에 앞질러 명시화하고 있다. 이는 작가에 의해 의도된 불확정성의 공간을 메운 것으로 TL 독자의 수용을 위한 기대지평의 조정과는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대지평의 조정은 수용환경에 기반하기에 동일한 ST에 대해서도 번역텍스트의 변용은 양상 차이가 발생한다. 물론 동일한 수용환경에서도 번역자에 따라 텍스트의 변용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3장에서는 수용환경 기반 기대지평에 따른 번역텍스트의 변용 양상을 ‘무엇을 조정하는

가'와 '어떻게 조정하는가'의 두 부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겠다. 전자를 결정하는 것이 수용환경이라면, 후자는 번역자에 따라 선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3. 기대지평에 따른 번역텍스트의 변용 사례분석

3장에서는 번역텍스트에 대한 수용환경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김영하의 <빛의 제국>과 <검은 꽃>, 김애란의 <바깥은 여름>, 그리고 한강의 <작별하지 않는다>에 대한 중국어와 대만 번역본 간 변용 양상 차이를 비교·고찰한다. 중국과 대만 번역본을 각각 TT1과 TT2라고 할 때 각각의 제목과 번역자, 출판사와 출판년도는 다음과 같다.²³⁾

<표 1> 중국(TT1)과 대만(TT2) 번역본 비교

한국어 제목	중문 제목 (TT1/TT2)	번역자	출판사	출판년도
빛의 제국	光之帝国	薛舟	人民文化出版社	2011
	光之帝国	卢鸿金	漫游者文化事业	2019
검은 꽃	黑色花	朴善姬、何彤梅	浙江文艺出版社	2015
	黑色花	卢鸿金	漫游者文化事业	2020
바깥은 여름	外面是夏天	徐丽红	人民文学出版社	2019
	外面是夏天	冯燕珠	凯特文化创意	2021
작별하지 않는다	不做告别	卢鸿金	九州出版社	2023
	永不告别	卢鸿金	漫游者文化事业	2023

23) 한강의 <작별하지 않는다>를 제외하고는 제목은 같으나 번역자는 모두 다르며 중국에서 먼저 번역·출판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1) 무엇이 조정되는가?

우선, 가장 많이 조정되는 것은 ST에 등장하는 고유의 ‘문화소(cultural element)’들이다. 일반적으로 ‘특정 문화가 가지는 고유성을 내포한 문화 특정 어휘 및 관용어’로 정의되는 문화소는 도착어 문화권에서 생소하거나 상이한 연상작용을 일으키는 ‘부등성’을 특징으로 한다. 다시 말해, 문화소는 또 다른 수용환경에서 등가가 불가능하기에 TL 독자의 기대지평에 기반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5)의 ‘직선제 개헌론’과 ‘5·3인천사태’, (6)의 ‘한민전 방송’, (7)의 ‘입성’, ‘갓’, ‘양반’, ‘장옷’, (8)의 ‘로보카폴리’와 ‘그리드 한글차트’ 등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역사적·문화적 고유성에서 기인한 ‘낯섦’이 중국어 독자들의 수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 기대지평의 조정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의미의 풀이((5)의 TT2와 (6)의 TT1/TT2, (8)의 로보카 폴리), 유사한 등가물로 대체((7)의 TT1/TT2) 등이다. 기대지평의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5)의 TT1과 (8)의 한글차트)에 비해 TL 독자들의 수용이 용이하다.

(5)

ST: 1986년 초, 새로 등장한 신민당을 중심으로 직선제 개헌론이 제기되고, 이런 흐름은 곧 5:3 인천사태로 이어지게 되지만 신입생 장마리가 그런 상황을 알리 없었다. <빛의 제국> 186-187쪽

TT1: 1986年初, 以新登场的新民党为中心, 直选制改宪论兴起, 这种潮流直接导致了“五·三”仁川事件。作为新生, 张玛丽不可能了解这些。

TT2: 一九八六年初, 以新登场的新民党为中心, 提议修改宪法总统直选, 如此的潮流引发五、三仁川事件, 但新生张玛丽并不知晓这个情况。

(6)

ST: 몇 부의 앙상한 팸플릿과 한민전 방송의 조악한 녹취록만 읽고서 어떻게 저렇게 모든 것, 심지어 역사의 종착역까지를 아무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는 것일까? <빛의 제국> 215쪽

TT1: 只有读了几本空洞的宣传册和韩民族民主战线广播的拙劣材料, 怎

么就对这一切，甚至连历史的终结站都坚信不疑呢？

TT2: 仅读了几本内容贫瘠的小册子，以及韩民族民主战线广播的低劣录音记录，怎么可以对于所有事情，甚至连历史的终结都可以如此确信不疑？

(7)

ST: 그들은 이종도와 같은 황족은 아니었으나 입성이나 갓의 모양으로 보아 양반임에는 분명해 보였다. ... 장옷을 둘러쓴 두 여자와 허세를 부리는 갓 쓴 양반의 모습은 마스트에서 나부끼는 유니온잭과 기묘한 대비를 이루었다. <검은 꽃> 29쪽

TT1: 他们并不是李宗道这样的皇亲国戚，不过从衣服和沙帽来看，显然也是富贵之人。... 两个身穿长裙的女儿和戴着沙帽虚张声势的贵族，这与桅杆上飘扬的英国国旗形成了滑稽的对照。

TT2: 他们虽然不像李宗道属于皇族，但从衣服和沙帽的摸样来看，分明是贵族无误。... 披著长衣的两个女人，以及戴著纱帽、虚张声势的贵族，与桅杆上飘扬的米字旗形成奇妙的对比。

(8)

ST: 아내는 영우 방 창문에 '로보카 폴리'가 그려진 롤스크린을 달고, 방문에 'ㄱㄴ드 한글 차트'를 붙였다. '기억'란에는 '강아지'가 '니은'칸에는 '나비'가 나오는 식의 브로마이드였다. <마같은 여름> 17쪽

TT1: 妻子在英宇房间的窗户上挂了画有变形警车的卷帘，门上韩文字母表。"ㄱ"栏里有"小狗"，"ㄴ"栏里有"蝴蝶"的放大图片。

TT2: 妻子在英宇房门挂上卡通「玩具车波力」的卷廉，在房间里贴煮「ㄱㄴ드韩文字母表」的挂图，字母「ㄱ」后面就出现「狗」、 「ㄴ」后就出现「蝴蝶」。

두 번째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이다. 이는 특히 중국 번역본에서 변용이 두드러졌는데 주요하게는 (9)의 '발해'와 같은 역사와 영토, (10)의 '마오쩌둥'과 같은 특정 정치 지도자, (11)과 같이 중국 비하('되놈')의 내용이다. TT1에서는 모두 생략되었다. (12)의 경우와 같이 특정 정치 지도자의 외모를 거론하는 내용도 TT1과 TT2에서 모두 생략(∅)되었다.

(9)

ST: 여기가 하와이보다 못할 것이 없지 않으나, 어차피 하와이로 간다 해도 역시 사탕수수 농장의 노동자로 남의 부림을 받아야 하나 이곳은 자유다. 독립된 나라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다. 미국과 멕시코에 흩어진 동포들도 모두 불러들여 농사짓고 장사하며 사는 것이다. 발해가 따로 있느냐, 이곳이 바로 발해다. <검은 꽃> 340쪽

TT1: 这里也不比夏威夷差, 即使去了夏威夷, 我们也是干蔗农场的劳工, 受人家使唤, 只有这里才自由。我们将在独立国家堂堂正正地生活。我们还可以召集分散在美国和墨西哥的同胞, 种地做生意。_____Ø_____

TT2: 这里不比夏威夷差, 何况我们即使去了夏威夷, 还是得去干蔗农场做工, 听从别人使唤, 但在这里拥有自由。我们可以在独立的国家理直气壮地活煮, 还可以把分散在美国和墨西哥的同胞全部叫来, 一起种田、做生意。还要去哪里找渤海国吗? 这里正是渤海国啊! (西元六九八年, 大祚荣在朝鲜半岛北部区域和满州之间建立的国家)

(10)

ST: 물론 마리는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 책을 아는 척한 걸 후회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모택동의 대장정 얘기잖아?”

“마오쩌둥이라고 불러야죠.”

“책 많이 읽으시나봐요.”

<빛의 제국> 152쪽

TT1: 当然玛丽没有说这些。她后悔自己不该流露出对这本书的熟悉, 但是已经晚了。

“不是毛泽东的长征故事吗?”

_____Ø_____

“看来您读过很多书啊”

TT2: 当然玛丽没有把这话说出口, 反而后悔说出自己知道这本书, 可是为时已晚。

「不就是牵者东大长征的故事吗?」

「毛-泽-东, 发音要正确一点。」

「你读过很多书嘛!」

(11)

ST: 그까짓 나라 해준 것이 무엇이 있다고 돌아가겠는가. 어려서는 굶기고 철드니 때리고 살 만하니 내치지 않았나, 위로는 되놈에, 로스케 등쌀

에, 아래로는 왜놈들 군홥발에 이리 맞고 저리 굽신, ... <검은 꽃> 84쪽
 TT1: 那个国家为我们做过什么? 小时候饥寒交迫, 长大了对我们拳脚相加, 等到日子还能过得下去, 又把我们赶出家门。北边有俄罗斯人找茬, 南边有日本人挑衅, 我们的国家却只知道唯唯诺诺, 大气都不敢喘。
 TT2: 那种国家, 究竟为我们做了什么? 为什么要回去? 小的时候挨饿。大了以后就对我们拳打脚踢, 等到日子过得还可以了, 又把我们赶走。北边有中国、俄罗斯折腾, 南边得向倭寇卑躬屈膝。

(12)

ST: 붉은 색 바탕 위에 희미하게 마오쩌둥의 살찐 얼굴이 점묘로 표현된 표지가 이탈리아 레스토랑의 흰 테이블보와 잘 어울렸다.

<빛의 제국> 150쪽

TT1: 红底加上以点描技法呈现的毛泽东的 面部构成了封面, 与意大利餐厅的白桌布相得益彰。

TT2: 大红的底色隐约印有毛泽东的 脸孔。这种设计绝妙的封面和意大利餐厅白色的桌布相非常搭配。

한편 성적으로 예민하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은 아동문학²⁴⁾에서와 달리 중국과 대만 번역텍스트 모두에서 크게 변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3)은 세 명이 진행하는 혼숙, (14)와 (15)는 소년에 대한 성인의 동성에 표현이다. 다만 (13)의 ‘將軟長的生殖器塞入她的嘴里’, (14)의 ‘輕柔地撫摸他逐漸脹大的生殖器’, (15)의 ‘滾燙的東西穿頭透二正的后方’와 같이 TT2가 TT1에 비해 보다 직접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²⁵⁾

24) 강경이, 「한국사회의 유교적 이데올로기에 따른 중국 아동문학 번역에서의 텍스트 조정 양상-장유유서 사상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제18권1호, 2016; 최지영·맹양, 「청소년 문학의 ‘굴절(refraction)’ 양상 연구: 번역규범과의 기능적 관계를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제66집, 2021.

25) 물론 이들 사례로 중국과 대만 간 수용환경 차이를 단언할 수는 없으나, 최소한 대만에서 받아들여지는 수위가 중국보다 높을 수 있다는 것은 알 수 있다.

(13)

ST: ...그러나 스물한 살짜리들의 생각은 달랐다. 그들은 마리를 얻어냈다가 다시 뒤집었다가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 듯 옆으로 누고 자신들의 몸을 집어넣었다. 그중 한 명은 마리의 머리 쪽으로 다가와 길고 물렁한 성기를 들이밀었다. <빛의 제국> 364-365쪽

TT1: ...二十一岁小伙字们的想法和她不一样。他们让玛丽趴下，再翻过来。这样似乎还不满意，又让她侧身，插入她的身体。一个人凑到玛丽面前，塞入了长长的软塌塌的生殖器。

TT2: ...可是二十一岁男孩的想法不同，他们让玛丽趴下，又翻过来，却似乎不满意，于是让她侧躺著，插入她的身体。其中一个人凑到玛丽面前，将软长的生殖器塞入她的嘴里。

(14)

ST: 머뭇거리는 이정의 입술과 요시다의 입술이 마주치고 요시다의 혀가 이정의 입 속으로 들어왔다. 뒤로 나동그라지려는 이정을 요시다의 두 손이 꼭 부여잡고 있었다. ...남자와 여자를 통틀어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그 혼란을 틈타 요시다의 손이 이정의 사타구니로 들어갔다. 키다랗게 부풀어 오른 그의 성기를 요시다가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검은 꽃> 50-51쪽

TT1: 二正踌躇不定的嘴唇碰到吉田的嘴唇，吉田的舌头伸进了二正的嘴里。二正试图向后挣扎，吉田的双手将他紧紧抓住了。...对他来说，无论是和男人还是和女人，这种事还都是第一次。...吉田的手已经趁机伸进了二正的裤裆，温柔地抚摸着那个膨胀硕大的东西。

TT2: 二正犹豫不定的嘴唇碰到吉田的嘴唇，吉田的舌头伸进二正的嘴里，双手抓住往后跌到的二正。...二正的心也澎湃不已。无论是男人或女人，这种事情对二正来说都是第一次。...吉田把手伸进二正的裤裆里，轻柔地抚摸他逐渐胀大的生殖器。

(15)

ST: 저항을 포기한 이정의 태도를 허락으로 간주한 요시다의 몸짓이 대답해졌다. 소년의 가슴과 성기와 엉덩이를 미친 듯이 어루만지며 체온을 높였다. ... 요시다의 혀가 이정의 귓불을 핥는 사이 뜨거운 것이 이정의 뒤를 꿰뚫었다. <검은 꽃> 74-75쪽

TT1: 吉田把二正放弃反抗当作默许，动作更加大胆。他狂风地揉搓着少年的胸膛、生殖器和屁股，体温迅速上升。...吉田的舌头添着二正的耳垂。

二正忽然感到后边热浪袭来。

TT2: 吉田以为二正没有抵抗的态度是表示同意, 动作变得更加大胆。他疯狂地爱抚少年的胸部、性器官和屁股, 体温随之上升。…吉田的舌头添煮二正耳垂时, 滚烫的东西穿头透二正的后方。

마지막으로 수용자가 인식하는 어휘에 기반한 기대지평의 조정이다. 이는 (16)과 같이 ST와 TT 간 인식 차이에 기반한 경우(‘러일전쟁’과 ‘일러전쟁’)와 (17)~(19)의 중국과 대만의 수용환경 차이에 기반한 경우가 있다. (17)의 ‘대만’은 각각 ‘中国台湾’과 ‘台湾’으로, (18)의 에드가 스노우의 저서 <중국의 붉은 별>은 <红星照耀中国>와 <西行漫记>(Red Star Over China)로 번역되었는데, 중국과 대만 수용자의 인식 차이에 기반한 기대지평의 조정이다. 또한 (19)에서와 같이 한국과 북한에 대해서도 수용자의 기대지평이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6)

ST: 대한제국 신식 군대의 공병 하사였던 그는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군복을 벗었다. <검은 꽃> 16쪽

TT1: 曾在大韩帝国新式军队当过下土工兵, 日俄战争爆发后脱下了军装。

TT2: 大韩帝国新式军队的工兵下士, 日俄战争爆发后, 他就脱下了军服。

(17)

ST: 삼만 명이었어요. … 대만에서도 삼만 명, 오키나와에서는 십이만 명이 살해되었는데요. <작별하지 않는다> 136쪽

TT1: 三万人。… “中国台湾也有三万人被杀害, 琉球是十二万人。”

TT2: 三萬人。… 臺灣也有三萬人被殺害, 沖繩是十二萬人。

(18)

ST: 고성욱은 에드가 스노우의 <중국의 붉은 별>을 가방에서 꺼내 하얗게 표백한 테이블 보 위에 올려놓았다.

TT1: 高成旭从包里拿出德加·斯诺的<红星照耀中国>, 放在洁白的桌子上。

TT2: 高成旭将美国记者德加·史诺(Edgar Snow)写的<西行漫记>(Red Star Over China)从包里拿出, 放在漂白的桌子上。

(19)

ST: ... 그러나 남으로 내려와보니 그 모든 게 헛된 노력이었다. 미국은 북한의 모든 것을 손바닥 보듯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북의 고위층도 미국의 이런 정보력을 모를 리 없었을 것이었다. <빛의 제국> 117쪽

TT1: 他到韩国之后才知道, 这些努力统统都是徒劳。美国对北朝鲜的一切都了如指掌, 北朝鲜的高层领导人不可能不了解美国的情报能力。

TT2: 但后来基荣到南韩来一看, 那些所有的努力都是白费力气。美国对于北韩的一切动态了若指掌, 而北韩的高层也不可能不知道美国的情报能力。

2) 어떻게 조정되는가?

수용자의 기대지평에서 무엇을 조정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것이 수용환경이라면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조정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번역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기대지평을 조정하는 것은 번역자의 선택에 따른 번역 방식과 전략의 문제로 여겨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이 글에서는 수용환경에 기반한 기대지평의 차이를 비교한다는 점에서 중국과 대만 간 텍스트 변용의 가장 큰 차이를 야기한 국가와 민족, 영토, 정치 지도자 등과 관련한 내용만을 대상으로 기대지평이 어떻게 조정되는지를 고찰하겠다. 이는 크게 생략과 축소, 대안적 어휘의 선택, 그리고 추가를 통한 설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중국 번역본은 3가지 방식 모두에서 대만 번역본에 비해 기대지평의 조정이 두드러졌다.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다.

우선, 생략과 축소이다. 중국과 대만 번역본 모두 원저의 내용 대부분이 생략되거나 축소되지 않는 가운데, 이는 유독 특정 내용과 관련해서 중국 번역본에서 두드러졌다. 예를 들어 (20)의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의 잔혹성에 관한 내용은 모든 내용이 번역된 TT2와 달리 TT1에서는 대폭 축소되었고, (21)의 중국에 대한 비속어 ‘되놈’도 TT1에서만 생략(∅)되었다.

(20)

ST: “내, 내, 내 말은 정치가 안정된 나라도 있다는 거야. 피노체트가 됐든 뭐가 됐든.”

“그 끔찍한 고문, 납치, 학살 쿠데타, 이런 걸 지지하는 거야?”

“그럼 너는 마오가 문화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그 대학살은 어떻게 생각해? 중국 전역에서 수 천명이 죽었다구. 스탈린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못하진 않았어.” <빛의 제국> 324쪽

TT1: “我, 我, 我的意思是说, 毕竟还存在政、政、政治稳定的国家, 不管是不是皮诺切特。”

“残忍的拷问、绑架、屠杀、军事政变, 这些你也支持吗?”

“那你怎么看待毛泽东发动的文化大革命? ∅ 全中国死了那么多人。”

TT2: 「我、我、我是说还是有政、政、政治安定的国家, 不管是不是皮诺切特。」

「你支持那些惨绝人寰的拷问、绑架、屠杀、军事政变吗?」

「那你对于毛泽东文化大革命之名进行的大屠杀怎么认为? 全中国死了几千万人, 比史达林有过之而无不及啊!」

(21)

ST: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어쩌면 우리 모두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어. 왜놈이나 되놈으로 죽고 싶은 사람 있어?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 이정이 단호하게 말했다. <검은 꽃> 306쪽

TT1: 大家都沉没了, 也许我们明天就会死, 难道你们死的时候还希望自己是日本人 ∅ 吗? 我不想那样, 二正断然说道。

TT2: 大家都陷入短暂的沉没。也许我们所有人明天就会死, 你们当中有没有人希望自己死的时候是倭寇, 还是中国佬?我不想那样, 二正断然说道。

두 번째는 ‘대안 어휘(Alternative Lexicon)’의 선택이다. 두 언어·문화간 등가가 존재하지 않을 때 상위어휘나 일반어휘, 혹은 유사한 등가물로 번역하는 방식을 ‘대체’라고 한다면 대안 어휘는 특정 수용환경에서 특정 어휘를 선택하거나 회피하는 방식이다. 어휘에는 사회문화적 함의가 내포되어 있기에 수용환경에 따라 선호 혹은 회피하는 어휘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원저가 제시하는 어휘를 따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번역자의 적극적인 선택을 끌어내는 수용환경의 영향을 방증한다. 이는 특정 내용과 관련하여 중국 번역본에서 두드러

졌다.

(22)

ST: 인선은 사립 문화재단으로부터 다음 영화 제작을 위한 지원금을 받았다. 비교적 넉넉한 예산으로 인선이 만든 후속작은 1940년대 만주에서 독립군으로 활동했던 할머니의 치매에 걸린 일상을 다룬 것이었다.

<작별하지 않는다> 34쪽

TT1: 仁善获得了私立文化财团对制作下一部纪录片的资助。这部片子讲述的是二十世纪四十年代在中国东北反抗日本帝国主义的老奶奶患上阿尔茨海默病的日常生活。

TT2: 仁善獲得私立文化財團資助，得以製作下一部電影。用相對較為充裕的預算製作的後續作品，是講述一九四〇年代在滿洲參加獨立軍對抗日本帝國主義的老奶奶，她罹患上癩呆症的日常生活。(역주:滿洲係指目前中國大陸東北的遼寧省、吉林省、黑龍江省等地)

(22)는 한강의 <작별하지 않는다>의 중국과 대만 번역본에서 발췌하였다. 다른 3작품들과 다르게 <작별하지 않는다>는 2023년 같은 해 동일 번역자(盧鴻金)에 의해 중국과 대만에서 각각 출판되었는데(<표 1> 참조), 7월에 대만에서 먼저 번역된 후 약간의 교정을 거쳐 11월에 중국에서 출판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시 말해, ST의 ‘만주에서 독립군으로 활동했던’은 먼저 TT2의 ‘在滿洲參加獨立軍對抗日本帝國主義的’와 같이 번역되었다가 TT1에서 ‘在中国东北反抗日本帝国主义的’와 같이 교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중국어 번역본이 ‘만주’, ‘독립’과 같은 어휘를 회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23)과 (24)를 통해서도 중국어 번역본에서 선호하는 어휘를 확인할 수 있다. (23)의 ‘동학의 난’과 (24)의 ‘농민반란’은 TT1에서는 ‘东学党起义’, ‘农民起义’로 번역되었는데, ‘壬午年的軍亂’ ‘東學之亂’으로 원저와 유사하게 번역한 TT2에 비해 ‘난(亂)’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하고 있다. 대만과 다른 중국 수용환경에 영향을 받은 ‘대안 어휘의 선택(Alternative Lexicalization)’이라고 하겠다.

(23)

ST: 소년도 자세히는 알지 못한다. 임오년의 군란이었는지 아니면 동학의 난이었는지 모르나 아버지는 그중 하나에 휩쓸려 죽었다고 했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죽자 어디론가 떠나버렸다. <검은 꽃> 15쪽

TT1: 少年自己也不甚了然。不知道是"壬午军乱"还是"东学党起义", 反正是父亲在动乱中丧了命, 母亲在父亲死后不久就没了踪影。

TT2: 少年并不确定, 有人说他父亲死于壬午年的军乱或东学之乱, 母亲则在父亲死了之后不知去向。

(24)

ST: 행진이 계속되는 동안 행렬 속으로 농기구들, 이를테면 지게 작대기나 쇠스랑 같은 것들이 전해졌다. 이윽고 남자들은 어딘가에 멈추었다. 그 모습은 마치 농민반란의 시작을 묘사한 한 폭의 역사화처럼 보였다. <검은 꽃> 19-20쪽

TT1: 前进过程中, 不断有背包架、铁链等东西送进队伍。没多久, 男人们在某个地方停下了脚步。那场面如同描写农民起义开始的历史画卷。

TT2: 他们走着走着, 手上陆续多出了长棍、铁耙等农具。过了片刻, 男人在某个地方停下脚步。那个场面看起来像是描绘农民叛乱开始的一幅历史画作。

마지막으로 설명을 포함한 추가이다. 수용자의 이해를 위해 기대지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데, (25)와 같이 번역문에 설명을 추가하거나 (26)의 TT2에서와 같이 역주를 활용하는 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25)

ST: 사간동에선 놋쇠요강이라는 편리한 물건이 있어 아침이면 몸종들이 치워내곤 했지만 그런 사치를 기대할 수는 없었다. <검은 꽃> 56쪽

TT1: 司谏洞의家里有黄铜做的尿壶, 使用起来很方便, 每天早晨都有下人来收拾干净。那样的奢侈她已经不敢指望了。

TT2: 在司谏洞的家里, 有黄铜夜壶这种方便的东西, 每天早晨让下人清洁即可, 在船上自然无法期待这种奢侈。

(26)

ST: 우리가 이곳으로 이사 온 건 작년 봄이다. 분양면적 이십사 평, 실면

적 십칠 평에 지은 지 이십 년 된 아파트였다. ...많은 경우 매매가와 전세 보증금 차가 크지 않았고 조건 맞는 전셋집을 구하기 어려웠을뿐더러 이사라면 지긋지긋하던 차였다. <마같은 여름> 12쪽

TT1: 我们是去年春天搬到这里的。建筑面积24坪^①，实际使用面积是17坪，房龄二十年。...很多时候，售价和整租保证金的差异并不大，寻找合适的整租房并不容易，而且当时搬家也很头疼。

① 韩国土地面积单位，一坪相当于3.3平方米

TT2: 我们去年春天搬来这里，权状二十四坪，但实际只有十七坪的二十年屋龄的公寓。...以现况来说，房子的卖价与传贯(译註·南韩的特殊租屋系统，房客在租屋起始时向房东提供一笔保证金，通常为房产价值的三成至九成，不必每月缴纳租金。而房东借此进行投资并保留获利，租期结束后归还房客原保证金即可)的保证金差不了多少，但符合条件的传贯屋可遇不可求，而且租约到期又要搬家令人讨厌。

사례(25)와 (26)이 일반적으로 두 언어·문화간 발생할 수 있는 인식의 간극에 대한 기대지평의 조정이라면 (27)과 (28)의 경우 중국과 대만이라는 수용 환경 차이에서 오는 기대지평의 조정이라는 측면에서 비교할 수 있다. (27)의 ‘러시아와 중국이 세력을 잃고 패퇴하고 난 지금’에 대해 TT1은 TT2와 달리 ‘在朝鮮’이라는 설명을 추가하였다. 모호하게 표현된 ST의 불확정성의 공간을 번역자의 해석으로 메우고 있다. (28)의 경우도 유사하다. TT1은 ‘遗憾的是’, ‘完整的组织’, ‘斗争’, ‘农民阶级’와 같이 ST에 대한 설명을 추가함으로써 내용을 명시화하고 있는데, TT2와 같이 ST 그대로 번역해도 수용에 어려움이 없다고 할 때 불필요한 기대지평의 조정이라고 하겠다. 이는 생략과 축소, 대안어휘의 선택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 번역본이 대만번역보다 특정 내용에 대한 영향을 더 받고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해 준다.

(27)

ST: 러시아와 중국이 세력을 잃고 패퇴하고 난 지금 일본이 고귀한 혈통에게 무슨 짓을 할지 아무도 모를 일이었다. 황제는 비마저 난자당하는 판이었다. <검은 꽃> 23쪽

TT1: 俄国和中国在朝鲜败退之后，谁也不知道日本对这些贵族血统干出什么样的勾当，毕竟皇帝的妃子都被乱刀刺死了。

TT2: 俄罗斯和中国势力渐失、败退之后, 没有人知道日本会对高贵的血统做出什么样的事来, 毕竟连皇帝的妃子都已被乱刀刺死。

(28)

ST: 그러나 조직화되지 않은 이들 마야인들은 비만 내리면 각자의 옥수수밭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결정적 승리를 쟁취하는 데 실패하였다. 농민의 한계였다. <검은 꽃> 99쪽

TT1: 遗憾的是, 玛雅人没有形成完整的组织, 一下雨就跑回自家的玉米地。斗争没有取得决定性胜利。这也可以说是农民阶级的局限性导致的结果。

TT2: 但是那些马雅人缺乏组织, 只要一下雨, 就会回到自己的玉米田工作, 因此在决胜战上失利。这正是农民的局限性。

4. 글을 맺으며

번역연구에서 문화적 전환은 기존의 ST에 대한 충실성 대 가독성 논쟁을 번역방식과 전략의 문제로 전환시켰다. 번역이 ‘도착어 문화권에서의 다시쓰기’로 재정의되는 가운데, 이제 수용과정에서 번역자의 개입은 하나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양하게 변용된 TT가 존재하는 가운데, 그러한 번역자의 선택과 전략에 영향을 주는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논의가 확장될 필요가 있다.²⁶⁾ 하나의 텍스트가 도착어권 문화에 수용되기 위해 번역자가 필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 사이에 작동하는 지배적인 규범을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²⁷⁾

이 글은 번역에서의 기대지평을 ‘서로 다른 언어·문화권 간 발생하는 수용

26) 이 점에서 볼 때, 충실성 대 가독성, 자국화 대 이국화 등의 논쟁은 번역자의 선택에 따른 다양한 TT의 차이에 관한 것이며, 굴절이나 번역규범, 폴리시스템 등은 그러한 번역자의 선택에 영향을 끼치는 수용환경의 요인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7) 수잔 바스넷, 윤선경 옮김, 『번역』, 동인, 2017, 48쪽.

과정에서 TL 수용자가 ST에 대해 가지는 인식의 간극'이라고 정의하고 기대지평을 조정하는 주체로서 번역자를 상정하였다. 그리고 동일 원저에 대한 중국과 대만 번역본 간 비교를 통해 문화적으로 변용되는 텍스트 간 양상 차이를 조정대상과 방식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ST 고유의 문화소,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 그리고 인식 차이에 따른 어휘가 중국과 대만 수용자의 기대지평을 기반으로 조정되었고, 그 방식으로는 생략과 축소, 대안어휘, 설명과 역주를 포함한 추가 등이 사용되었다. 특히 중국 번역본의 경우 국가와 민족, 영토, 정치 지도자 등 내용과 관련해서는 수용환경의 영향이 대만에 비해 두드러졌다. 이를 통해 수용환경은 일종의 이데올로기의 형태로 번역텍스트의 변용에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하겠다. 이때 이데올로기는 특정 사회에서 통용되는 가치 혹은 신념 체계로 정치나 종교 등 이념의 형태로 좁혀 볼 수도 있지만 그 보다는 동일 집단 내에서 공유되는 폭넓은 문화의 형태로 수용자의 기대지평을 구성하는 선지식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²⁸⁾

번역자의 선택과 전략은 개인의 언어습관이나 가치관 혹은 지향점으로 드러나기에 수용환경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럼에도 수용을 위한 적절한 기대지평의 조정에 관해 번역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원저의 첫 번째 독자이자, 새로운 버전의 번역본을 생산하는 또 다른 작가로서 번역자의 역할이 가지는 중요성 때문이다. 이는 문화적 전환에도 불구하고 번역이 가지는 본연의 성질에 기인하는 바, 두 개의 텍스트와 두 개의 컨텍스트 사이에서 작가의 문학적 장치와 TL 독자의 수용을 모두 이뤄낼 수 있는 두 주인을 모두 섬기고자 하는 것²⁹⁾이 번역의 최종 목표이기 때문이다.

28) 실제 번역텍스트에 대한 이데올로기의 영향은 기존 연구들을 통해 이미 상당 부분 입증된 바이다. 이지영, 「번역과 이데올로기-중국의 신문화 운동과 후스의 인형의 집 번역 실천」, 『중국어문학논집』 제125호, 2020; 유정화, 「한류 문화콘텐츠의 번역이데올로기: 한노 애니메이션 번역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제22권4호, 2018; 송연석, 「이데올로기의 번역-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자막번역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제10권2호, 2019; 송은지, 「번역과 이데올로기 연구의 인지번역학적 접근」, 『통역과 번역』 제21권 3호, 홍길동연구회, 2019.

29) 폴 리콕르, 윤성우·이향 옮김, 『번역론-번역에 관한 성찰』, 철학과 현실사, 2006.

參考文獻

- 로버트 C. 홀립, 최상규 옮김, 『수용미학의 이론』 서울: 예림기획, 1999.
- 볼프강 이저, 차봉희 편저, 『독자반응비평』, 서울:고려원, 1993.
- 수잔 바스넷, 윤선경 옮김, 『번역』, 동인, 2017.
- 제레미 먼데이, 사라 라모스 핀토, 남원준·이향진 옮김, 『번역학 입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23.
- 야우스 H.R, 장영태 역, 『도전으로서의 문학사』,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3.
- 폴 리콕르, 윤성우·이향 옮김, 『번역론-번역에 관한 성찰』, 철학과 현실사, 2006.
- Andre Lefevere, *Translation, History, Culture: A Sourcebook*, London: Routledge, 1992.
- Andre Lefevere, *Translation, Rewriting and the Manipulation of Literary Fame*, London: Routledge, 1992.
- Hermans, T. (ed.) *The Manipulation of Literature*, Beckenham: Croom Helm, 1985.
- Katharina Reiß & Hans J. Vermeer, Translated from the German by Christiane Nord, *Towards a General Theory of Translational Action: Skopos Theory Explained*, London: Routledge, 1984.
- Roman Alvarez & M.Carmen (ed.), 『번역, 권력, 전복』, 동인, 2007.
- 강경이, 「한국사회의 유교적 이데올로기에 따른 중국 아동문학 번역에서의 텍스트 조정 양상-장유유서 사상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제18권 1호, 2015.
- 강지혜, 「출판번역과 텍스트의 ‘재맥락화’: 『셀프헬프』의 번역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제8권 1호, 2007.
- 고위공, 「현대문예학의 인식방법론 문제-해석학, 현상학, 수용미학을 중심으로」, 『獨逸文學』 제27권 1호, 1982.

- 김가희·박윤희, 「『위대한 개츠비(The Great Gatsby)』 번역평가와 수용이론」, 『통역과 번역』 제16권 2호, 2014.
- 김소정, 「번역과 굴절: 『앵클토크캐빈』의 중국적 재구성」, 『중어중문학』 제46집, 2010.
- 김천혜, 「수용미학의 흥성과 쇠퇴에 대한 고찰」, 『독일어문학』 제8집, 1998.
- 도희진, 「중한 번역의 이데올로기 조정에 대한 소고」, 『번역학연구』 제9권 3호, 2008.
- 송연석, 「이데올로기의 번역-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자막번역을 중심으로」, 『인문사회21』 제10권 2호, 2019.
- 송은지, 「번역과 이데올로기 연구의 인지번역학적 접근」, 『통역과 번역』 제21권 3호, 2019.
- 안미영, 「조지 오웰 『1984』의 번역과 수용과정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67집, 2019.
- 이봉범, 「냉전텍스트 실패한 신의 한국 번역과 수용의 냉전 정치성」, 『대동문화연구』 제117집, 2022.
- 이지영, 「번역과 이데올로기-중국의 신문화운동과 후스의 인형의 집 번역실천」, 『중국어문학논집』 제125호, 2020.
- 유정화, 「한류 문화콘텐츠의 번역이데올로기: 한노 애니메이션 번역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제22권 4호, 2018.
- 장재일·박윤희, 「르페브르의 다시쓰기와 번역가의 과제-충실성(Fidelity)과 충실성(Loyalty)의 딜레마」, 『철학·사상·문화』 제25호, 2017.
- 조윤정, 「1950년대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본 『올리버트위스트』의 번역 양상」, 『구보학회』 35집, 2023.
- 한채화, 「수용미학적 인식론에 대한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제4호, 1999.
- 최지영·주몽아, 「자막번역의 수용자 영향 분석을 위한 시론: 기대지평의 융합을 위한 번역방식 비교를 중심으로」, 『한중언어문화연구』 52집, 2021.
- 최현주, 「이저의 수용미학에 관하여」, 『호남문화연구』 제37집, 2005.
- Yang Shizhuo, “Gone with the Wind, Gone with the translator Influences of Reception Theory on the Formation of a Translation”,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Vol. 11 no.2, 2009.

분석텍스트

김영하, 『빛의 제국』, 문학동네, 2010.

金英夏, 薛舟 译, 『光之帝国』, 人民文化出版社, 2011.

金英夏, 盧鴻金 譯, 『光之帝国』, 漫游者文化事業股份有限公司, 2019.

김영하, 『검은 꽃』, 서울: 서울출판사, 1998.

金英夏, 朴善姬、何彤梅 译 『黑色花』, 浙江文艺出版社, 2014.

金英夏, 盧鴻金 譯, 『黑色花』, 漫游者文化事業股份有限公司, 2020.

한강, 『작별하지 않는다』, 문학동네, 2021.

韩江, 卢鸿金 译, 『不做告别』, 九州出版社, 2023.

韩江, 盧鴻金 譯, 『永不告别』, 漫游者文化事業股份有限公司, 2023.

김애란, 『바깥은 여름』, 문학동네, 2017.

金爱烂, 徐丽红 译, 『外面是夏天』, 人民文学出版社 2019.

金爱烂, 馮燕珠 譯, 『外面是夏天』, 凱特文化創意 2021.

Abstract

A Study on Acculturation in Translated Texts

: Compared Chinese with Taiwanese versions based on Receptors' Horizon of Expectation

Choi, Ji Young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acceptance environments' influence on translation text by comparing two versions, Chinese and Taiwanese, with Korean original novels. This paper also assumes that a horizon of expectation, which is composed of prior knowledges under certain circumstances, gives a receptor a kind of perception's framework in accepting foreign texts. However, there must be gaps between SL and TL receivers to the same texts because of the different backgrounds in language and culture. China and Taiwan have walked different political lines, Socialism and Capitalism, respectively, since 1949, and it has caused differences in acceptance environments, even though they have had the same language and culture for a long time. Analysing the influence of acceptance environments on acculturation of TT consists of two parts, what and how to mediate. This paper confirms that cultural items, politically susceptible contents and perceptually different lexicons were mediated, and deletion, reduced translation, alternative lexicalization, explanation and translator's note are the way to mediate. There are big differences in Chinese version compared with Taiwanese on the contents of state, nation, territory, political leader, however there is little acculturation in the contents of homosexuality, mixed maturation.

Key words : reception theory, horizon of expectation, alternative lexicalization, acculturation, China, Taiwan

투 고 일 : 2024. 4. 10. / 심 사 일 : 2024. 4. 15. ~ 2024. 5. 15. / 게재확정일 : 2024. 5. 20.